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농촌을 꿈꾸며 -서천 아리랜드를 찾아서-

최동주 박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사무처장)

본인이 아리랜드(아리랑랜드의 약자)를 알게 된 것은 지난해 7월 5일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 개최한 「여가와 농촌 활성화」 심포지움의 사례발표자로 참여하면서부터였다.

곧이어 8월 3일 농림부 장관의 열린농정의 일환으로 그린투어리즘 관계자 간담회를 아리랜드에서 개최시 처음 방문의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올해 4월 16~17일 본회가 주관하는 2002-1 도·농 녹색교류 최고지도자과정 제2회 차 교육을 이곳에서 실시하게 되어 정의국, 최애순 부부의 찾아오는 농업,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리랜드는 정순보(정의국님의 선친)께서 50여 년 전에 “이 땅이 세계의 중심지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동백나무를 심고 「꿈과 희망이 있는 농촌, 잘사는 농촌, 행복을 나누는 농촌」을 구현하는 노력과 21년 전 정의국님이 도시에서의 공부와 직장생활을 마치고 귀농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초창기의 농사는 빛만 안겨 주는 절망적인 상태였으나, 마음을 다잡고 의기투합하는 젊은 이가 모여 희망찬 농촌 건설을 위해 또한 UR대비를 위해

- ① 생태 순환적 유기농업의 실천,
- ②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 ③ 농산물의 가공,
- ④ 농촌 환경을 자원화하여 도시민이 휴식처로 찾아오는 농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을 추구하기 위해 정의국·최애순 부부는 선친이 물려준 농장에서 “동백꽃 동산에서 음악회를 열며, 토종음식과 친환경농산물을 나누며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도시와 농촌이 만나 생명의 삶과 행복을 있게 하는 곳”을 만들고자 1996년 4월부터 동백축제 개최를 계기로 도·농 녹색교류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정의국·최애순 부부는 농업이 앞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이들의 휴식과 여가, 자연 및 농촌체험 등으로 소비자를 생각하며 도·농이 상생의 이념하에서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행복하게 잘사는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향후 농업·농촌의 역할이라고 한다. 즉 도·농 녹색교류를 통해 공동체 회복이 사회 복지의 기본이라며 찾아오는 농업, 함께 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남전리 합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합천 마을은 도시민들의 건강과 흙을 살리기 위해 바른 먹거리인 유기농 쌀을 비롯하여 고추, 고구마, 양파, 토종돼지, 야생화(분화)를 생산하고 있으며 죽염, 죽염된장, 죽염고추장, 김 등을 가공하여 도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합천 마을에는 15농가가 팜스테이 사업에 참여하여 주로 친환경 농사체험, 갯벌 및 고적 답사, 인근 관광명소를 방문 프로그램으로 도·농 녹색교류를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의한 생태마을 조성과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 및 요리까지 개발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남전 마을은 2001년도 행자부의 아름마을로 지정되어 명실상부한 도·농 녹색교류의 선두마을로써 자리매김 하고 있다.



▲ 아리랜드에서 제1기 녹색교류대학 2회차 교육을 마치고

이곳을 찾는 도시민들은 아마도 친정어머니의 따스한 정과 사랑을 느끼며 아름답고 여유로운 농촌의 멋을 만끽 할 것이다.

아리랜드의 도·농녹색교류활동은 홈페이지 (<http://www.ariland.net>)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

제1기 녹색교류대학 최고지도자과정 개별참가신청안내

4월 2일~7월 10일까지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이론 수업, 체험활동, 워크샵을 통해 보다 실무적인 도농녹색교류 최고지도자의 자질을 양성을 위한 교육이 다음과 같이 있으니, 관심있는 분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5월 교육일정

4회(5월 14~15일): 전북 순창군/ 임실군, 주제/지역경영형 그린투어리즘

5회(5월 28~29일): 경기 여주 상호마을, 주제/운영관리전략

● 참가신청방법

- 참가시 본회로 연락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매회 교육이 실시되기 3일전까지
- 참가비: 5만원
- 연락처: 전국농업기술자협회 02-794-7270